

[아세안]

박용대 Yongdai Park
02-3774-1782
yongdai.park@miraesasset.com

베트남 주식시장

국영기업 민영화 관련 국민회의 임박

- 베트남 중앙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관련 국민회의를 9월말~10월초에 개최할 예정
- 회의의 목적은 민영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, 촉진시키기 위한 해결책 논의
- 특히 논쟁여지가 있는 국영기업의 토지사용권 가치평가 관련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

국영기업 민영화 관련 국민회의 임박

- 베트남 중앙정부는 국영기업(SOE) 민영화 관련 국민회의를 9월말~10월초에 개최할 예정. 주요 사안으로는 토지사용권 가치평가 관련, SOE 민영화 리스트 수정, SOE 재분류 등 존재
- 이에 정부 기관(기획투자부, 산업통상부, 재무부, 국가자본관리위원회 등), 대기업, SOE 등이 현 민영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촉진하기 위해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
- 현재 정부 지분율이 100%인 SOE는 583개로 집계되는데, 정부는 2020년까지 이를 103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. 그러나 정부의 2016-2020년 IPO 목표 건수는 127건인 반면, 현재 까지 35건만 완료되어 달성율이 27.5%로 낮음
- 지난 8월 정부는 2020년말까지 93개 SOE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,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의결안에 서명함
- 93개 SOE를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민영화가 진행될 전망
- 기업별 IPO 후 예상되는 정부 지분율
 - 1) 65% 이상: Agribank, Vinacomin, Vinafood I 등
 - 2) 50~65%: VNPT, Mobifone, Vinachem, Vinacafe, Vicem, Satra, Saigon Tourist, Resco, Ben Thanh Group, UDIC, Handico, Khatoco, Hawacom 등
 - 3) 50% 미만: Vinapaper, HUD, VTC, SJC, Hanoi Tourist, Genco 1, Genco 2 등

민영화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

- SOE의 민영화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이용권리를 증명하고 법적 기록을 현 규정에 따라 다시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
-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, 중앙정부는 재무부에게 ‘문서 4533/BTC-TCDN(2019년 4월 15일)’의 검토를 요청했음. 재무부는 9월말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. 위 문서를 통해 SOE의 토지사용권 관련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예를 들어, 재무부는 Agribank에게 사용중인 모든 부지(베트남 전역 63개성의 2,200여개 지점)에 대해 각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계획 관련 승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청함. 하지만 과거 토지를 취득할 시, 문서가 수기로 작성되거나,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 존재. 또한 불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 따라서 모든 부지에 대해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은행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